

코스피·코스닥 실적 동반 성장세 수익성 개선 속 흑자 기업은 줄어

상장사 3분기 결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증가세
이익률도 개선되며 수익성 회복
삼성전자 제외해도 성장흐름 유지

반면 흑자 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
상위 중심 이익 집중… 양극화 확대

올해 3분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이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흑자기업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기업 간 편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12월 결산 법인 2025년 3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법인 639개사(금융업, 분할·합병,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 등 70곳 제외)의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2299조1183억원으로 5.44%(118조5226) 소폭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79조5678억원으로 전년 동기(156조1372억원) 대비 15.01%, 순이익은 지난해 121조834억원보다 25.80% 성장한 152조3269억원을 기록하며 대폭 늘어났다.

기업들의 수익성과 함께 영업활동 능력도 개선됐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7.81%, 순이익률은 6.63%로 전년 동기 7.16%, 5.55%보다 0.65%포인트, 1.



한국거래소 전경.

07%포인트씩 올랐다.

전체 매출액 비중 10.4%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20.1%, 34.3%씩 증가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58%, 매출액 순이익률은 6.16%로 집계됐다.

수익성이 주춤했던 코스닥 상장사도 올해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1217곳(137곳 제외)의 누적 연결기준 순이익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5849억원 대비 16.5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8조835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8조513억원보다 9.74% 성장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1217곳(금융업,

분할·합병,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 등 137곳 제외)의 3분기 누적 연결기준 순이익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5849억원 대비 16.5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8조835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8조513억원보다 9.74% 성장했다.

다만 양대 시장 모두 흑자 기업은 줄고, 적자 기업은 늘어났다.

코스피에서는 올해 3분기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 502개사(78.56%)로 지난해 515개사(80.59%)보다 13개사(2%포인트)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3분기 누적 순이익 흑자기업은 678곳(55.71%)으로 전년 동기 710곳(58.34%)보다 32개사 감소했다. 코스닥 내 적자기업은 539곳(44.29%)으로 전체 상장사 절반에 가깝다. 374개사(30.73%)가 적자를 지속했고 165개사(13.56%)가 적자 전환했다.

더불어 코스닥150 편입기업(133곳)과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의 성과는 미편입기업들의 실적을 상회했다. 코스닥150 편입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40%로 미편입기업(2.91%)보다 4.49%포인트 높았으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54%를 기록하며 미편입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3.59%를 4.95%포인트 앞질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코스콤, AI·STO 중심 금융혁신 전략 공개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5’ 참가

코스콤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5’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코스콤은 1전시장에 부스를 열고 ▲AI 기술 기반 상담 시스템(AICC) ▲STO 공동 발행 플랫폼 ▲금융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협업 모델도 소개한다. 특히 금융권에 특화된 AI 서비스 도입 사례와 보안·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음성·텍스트·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스콤 토큰증권(STO) 공동 발행 플랫폼은 현재 8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 시 참여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코스콤은 이번 행사에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와 공동 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제도 대응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D-테스트베드 등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클라우드·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AI 기반 디지털 혁신 사례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덕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핀테크·금융 업계에 토큰증권(STO) 시대의 도래와 AI 기반 금융 혁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코스콤은 금융 생태계 혁신과 토큰증권 정착, 클라우드 기반 AI 활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유안타증권, 1700억 신종자본증권 발행

30년 만기·5년·7년 콜옵션 구조
보험·저축은행 등 투자자 참여

유안타증권이 자본확충을 통한 사업 전반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1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18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30년 만기(만기일 2055년)의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과 7년이 지난 시점에 콜옵션(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증권이다. 각각 1100억원, 600억원을 발행하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다. 발행금리는 각각 연 5.0%와 연 5.7%로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3분기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약 1조6658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자본을 확충하게 됐으며, 신규 투자 여력

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수익 창출 동력을 얻게 됐다.

발행금액은 향후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금융상품 영업력 향상, 마진 파이낸스(Margin Finance) 활성화와 함께 기업금융부문 영업기반 확대, 홀세일(Wholesale)부문의 세일즈풀(pool) 확대 및 트레이딩(Trading)부문의 투자 기회 확보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전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뤼즈평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유안타증권은 기존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향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익원 다각화에 집중해 각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증권, 고객만족도 6년 연속 ‘1위’ 달성

3대 서비스 평가서 최상위 유지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연속 우수
CCO 중심의 보호 체계 고도화

삼성증권의 ‘고객 중심 경영’이 국내 최고 권위의 고객 만족 지표와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에서 성과를 입증했다.

삼성증권은 국내 3개 고객 만족 지수(NCSI, KS-SQI, KCSI)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신설된 한국능률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지수(KCPI)도 5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삼성증권은 만족도조사 평가 이래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23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21회,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20회 1위를 달성하며,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 만족도 1위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 만족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고객이 삼성증권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증명한다. NCSI, KCSI가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다면, KS-SQI는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전달 과정의 품질을 평가한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는 지난



11월,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에서 삼성증권이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KCPI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6대 판매 원칙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각 소비 단계별로, 구매(이용) 전, 구매(이용) 시, 구매(이용) 후 지켜야 할 ‘소비자 6대 권리’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수이다.

삼성증권은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최고소비자 책임자(CCO·Chief Consumer Officer)를 임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광장, 소비자평가단,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원칙 교육, 연 4회 자체 미스터리 쇼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광장은 삼성증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평가단은 고객과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별하고, 해당 주제의 이해도가 높은 고객을 선별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전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추진한다. 협의회 결과는 반기별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NCSI, KCSI, KS-SQI 등 3대 고객 만족 지수에서 이룬 모든 성과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거래소, 소액채권 전담회원 문턱 낮춘다

자기자본 3000억으로 진입 확대
채권 인력 의무·4000억 실적 신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소액채권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시 규모 제한이나 기존 전담회원과 경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액채권은 주택구입·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소액채권 전담회원은 소액채권 시장에서 시장 조성, 신고수익률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증권사다.

기존에는 소액채권 전담회원으로 신규 지정하려면 ▲자기자본 거래소 결제 회원 평균의 50% 이상 ▲총자산순이익률 거래소 결제회원 평균의 50% 이상 ▲3년 이상 채권 운용 직원 3인 이상 및 경력 1년 이상 증권결제 직원 1인 이상 중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 요건

을 3000억원 이상으로 대체하고, 총자산 순이익률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채권 운용 인력 요건은 선택에서 의무로 바꾸고 소액채권 연간 4000억원 이상의 거래 실적을 신설했다.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24개 사 이내’로 명시한 문구는 삭제했다.

아울러 기존 소액채권 전담회원의 경합 평가를 없애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담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소액채권 매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의무매수 호가 제출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액채권 전담회원에 대한 지정·평가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로 소액채권시장 개설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증권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

평가 시기와 결과 통보, 자료 요구권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신하은 기자